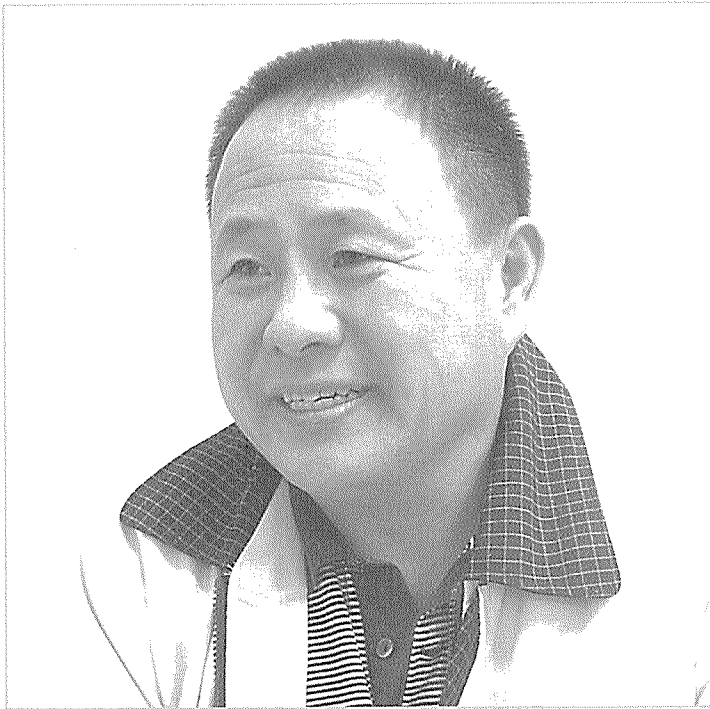


●●● 고명근 근육산업 사장

## 세계적 전환후 환기시스템 개발주력



근육산업(대표 고명근)은 지난 8월 대전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5 한국국제 축산 박람회(2005 KISTOCK)' 최우수업체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축산환기시스템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아오고 있다. 본고는 논산에 위치한 근육산업을 방문하여 고명근 사장을 만나 환기시설 등 기자재산업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 국내 환기시스템 선구자

고명근 사장은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국산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요가 적어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국산환기시스템을 선전하기 위해 '사용해보고 지불해 달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후 고명근 사장의 국산환기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이후 5년간 축산환기기계분야에서 독점을 하였고 인식도도 증가하여 오늘날의 근육산업을 이루었을 뿐 만 아니라, 국산제품의 활성화에도 큰 이바지를 해왔다.



▲ 축산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사회각계로부터 받은 다양한 상장과 표창이 진열되어 있다. ▲ 논산에 위치한 근육산업 본사전경

### 계사 표준화 시급

고명근 사장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4계절로 이루어져 있어 계절별 시스템이 국내에 맞게 표준화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특히 닭·병아리는 기온에 민감한 산물이므로 계사 설립시 소자본에 따른 계사 구성미비, 4계절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유럽식 기준의 사육방법추구 등 때문에 국내 기호에 적합한 계사 표준화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계사 설립시 국내 여건에 맞는 양계 컨

설턴트에게 상담을 통한 후 올바른 계사 건립과 온도변화에 따른 환기시스템 인식 및 설치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식 양계사육방식으로 계절에 따른 생산물 저하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그대로 농가들이 입고 있다고 말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사에 대한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환기시스템을 도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근육산업에서는 이미 지난 2000년부터 굴독형 환기시스템을 축산연구소 이덕수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해 육계농장의 생산성을 늘리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실험농장을 통해 국내실정에 맞는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고명근 사장은 현재 우리 양계계사를 텐트에 비유하면서 텐트안에서는 계절변화에 따른 환기시설의 발란스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여건에 맞는 계사구성과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최소 5년(실험 3년, 보급 2년)을 계획을 세워 양계산업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명근 사장은 앞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양계인과 함께 근육산업이 환기시스템을 지원하여 이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양계산업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리 | 기영훈 기자)



▲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최우수업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고명근(우), 이현옥(좌) 부부